제13강 비극의 형식 :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6장

- 텍스트: 아리스토텔레스/천병희 역, 『시학』, 문예출판사, 1991, pp. 47-53

1) 플롯, 2) 성격, 3) 조사, 4) 사상, 5) 장경, 6) 노래

☞ 모든 비극은 여섯 가지 구성 부분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며, 이 여섯 가지 부분에 의하여 비극의 일반적인 성질도 결정되는데, 플롯과 성격과 조사(lexis)와 사상과 장경과 노래가 곧 그것이다. 이 가운데 두 가지는 모방의 수단(조사와 노래, that with which)에 속하고, 한 가지는 모방의 양식(장경, how)에 속하고, 세 가지는 모방의 대상(플롯, 성격, 사상, what)에 속한다.

☞ 이 여섯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결합, 즉 플롯(mythos⇔logos)이다. 비극은 인간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과 생활과 행복과 불행을 모방한다. 그리고 행복과 불행은 행동 가운데 있으며, 비극의 목적도 일종의 행동이지 성질은 아니다. 인간의 성질은 성격(ethos)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행.불행은 행동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드라마에 있어서의 행동은 성격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격이 행동을 위하여 드라마에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결합, 즉 플롯이 비극의 목적이며, 목적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또 행동 없는 비극은 불가능하겠지만, 성격 없는 비극은 가능할 것이다.

☞ 사상(dianoia)이란 상황에 따라 해야 할 말과 적당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대사에 관한한, 이 능력은 정치학과 수사학의 연구 분야에 속한다. 왜냐하면 옛날 시인들은 등장 인물들로 하여금 정치가와 같이 말하게 하였고, 오늘날의 시인들은 수사학자와 같이 말하게 하기 때문이다. 사상을 성격과 혼돈해서는 안된다.

☞ 성격은 행동자가 무엇을 의도하고 무엇을 기피하는지가 분명치 않을 때, 그의 의도를 분명하게 해준다.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 무엇을 의도하고 무엇을 기피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느 s말은 성격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런데 사상은 무엇을 증명 또는 논박하거나 보편적인 명제를 말할 때 그 언사 속에 나타난다. 여러 가지 언어적 요소 가운데 제4의 것은 조사(lexis)다. 조사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언어로 사상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역할은 운문에 있어서나 산문에 있어서나 동일하다. 나머지 두 개 가운데, 노래(Melopoiia)는 비극의 쾌감을 산출하는 양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장경(opsis)은 우리를 매혹시키기는 하나 예술서잉 가장 적으며, 작시술과는

가장 인연이 먼 것이다. 비극의 효과는 공연이나 배우 없이도 산출될 수도 있는 것이며, 또 장경의 준비에 관한 한 의상계의 기술이 시인의 기술보다 더 유력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12장 (전문)

비극의 구성 요소로서 사용되어야 할 여러 부분에 관해서는 위에서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양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비극은 프롤로그(prologos)와 삽화(epeisodion)와 결미(exodos)와 코로스의 노래로 구분되며, 코로스의 노래는 다시 등장가(登場歌, parodos)와 정립가(停立歌, stasimon)로 구분된다. 이 두 가지는 모든 비극에 공통된 것이나 본무대(skene) 위에서 부르는 노래와 애탄가(哀歎歌, kommos)는 소수의 비극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프롤로그는 코로스의 등장가에 선행하는 비극의 전체 부분이고, 삽화는 코로스의 전체 노래와 노래 사이에 삽입된 비극의 전체 부분이다. 결미는 코로스의 마지막 노래 다음에 오는 비극의 전체 부분이다. 코로스의 노래 중에서 등장가는 코로스의 최초의 발언 전체이고, 정립가는 단단장격 운각(短短長格 韻脚, anapaistos)과 장단격 운각(長短格 韻脚, trochaios)이 사용되지 않는 코로스의 노래이고, 애탄가는 코로스와 배우가 합창으로 부르는 비탄의 노래이다. 비극의 구성 요소로서 사용되어야 할 여러 부분에 관해서는 위에서 이야기한 바 있고, 양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비극은 이상과 같은 여러 부분으로 구분된다.

☞ 그리스 연극은 '합창'에서 출발했다. 강약이 아니라 단장격(iambus)이 사용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그리스 음계가 오늘날과 달리,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었다는 점이다.